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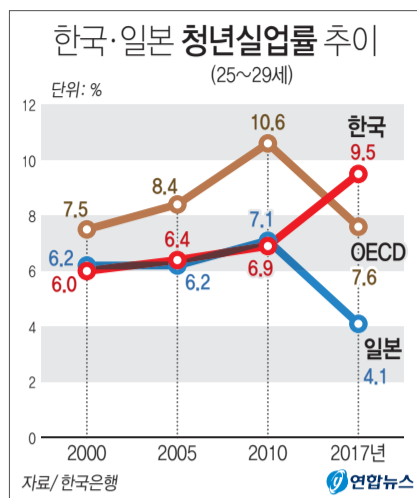
日보다 2배 높은 韓 '20대 실업률' 大-中企 임금격차가 주요 원인

한은, BOK경제연구

양질의 일자리 부족·고령화 등 작용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것은 고령화,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상승,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일자리 간 근로조건 격차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박상준 와세다대 교수, 김남주·장근호 한은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2000~2017년)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전체 실업률, 고령화율, 파트타임근로자 비중 등은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반면 청년 인구 비중, 임금근로자 비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업률이 높아지면 청년실업률도 높아지고, 고령화율(고령 인구 비중)이 늘면 총수요가 줄어들면서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파트타임근로자 비중이 높으면 일자리 자체는 늘어날 수 있으나 그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청

년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청년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노동시장에서 청년구직자 간 경쟁 심화로 실업이 증가할 수 있지만 경제활동 증진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면 청년실업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늘어나면서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국내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경제성장률 하락, 고령화 진전, 파트타임근로자 비중의 상승,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또 청년실업률 결정요인 외에 한국이 일본보다 청년실업률이 크게 높은 것은 일본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감각마케팅' 10년치 논문 총정리 '화제'

캠퍼스 인물
박혜린 단국대 경영학부 4학년



감각 및 다감각까지로 시각과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동적감각, 다감각 등 7가지 감각별 논문 결과물 요약·정리해 최신 감각마케팅 연구 흐름의 이해를 돕는다.

대학 경영학도가 최근 10년간 '감각마케팅'과 관련한 논문을 총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한 논문을 발표해 화제다. 기업 경영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논문으로 평가된다.

감각마케팅이란 소비자 감각을 자극해 상품구매에 영향을 주는 마케팅 전략을 뜻한다. 시각 등 오감을 활용한 제품 판매를 증진시키거나 고객들이 매장을 자주 찾도록 특화시키는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5일 단국대에 따르면 경영학부 4학년 박혜린 씨(사진)는 2007년~2018년까지 10년간 발표된 감각마케팅 분야 해외 선행 논문 120여편을 고찰하고 각 논문의 결과를 종합 정리한 논문을 한국경영학회 저널 '경영학연구' 12월호에 주저자로 게재했다.

경영학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한 우수등재학술지(2017년)로 학부생이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박 씨 논문 제목은 '감각마케팅에 대한 최근 연구의 종합적 고찰:오감에서 동적

다. 마케팅을 시도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각 감각에 호소하는 광고 전략을 펼쳤을 경우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미래 보여주는 셈이다.

박 씨는 "배달앱의 경우 음식 조리과정의 영상과 소리만으로 광고를 제작했고, 매출이 전년 대비 55%나 성장했다"며 "각각기간간 연상이나 상호작용 등 다감각을 활용한 감각마케팅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어떤 향이 매장에 단기간적으로는 긍정 영향을 주지만 향의 세기가 일정 이상이 되면 소비자는 역감정을 느끼고 자극이 오랜 시간 노출되면 감각 지각이 둔화되는 경향도 있다"며 "감각 자극 정도에 따른 연구와 오감이 융합되는 다감각의 감각 척도 연구도 앞으로 새롭게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불수능 최대 피해는 '중하위권'... 경쟁 치열

수능 점수 발표...정시지원 전략은

수능 점수 '상후하박' 구조
불수능 최상위권 변별력 ↑
영역별·대학별 등 셈법 필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인 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성적표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전달됨에 따라 대학 정시 모집 경쟁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 수능이 고난도 문항 출제로 최상위권 위주로 변별력이 높아져 소신지원이 가능하지만, 투터운 중의 중위권 수험생 위주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각 입시업체가 발표하는 예상 합격선은 지원자 수 등 변수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하는게 좋다.

◆성적별 지원 전략 달리 해야
올해 수능은 표준점수 최고점과 1등급 구분점수(등급컷)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국어 31번 문항 등 고난도 문항 출제로 '상후하박(上厚下薄)' 구조가 더 명확해졌다. 상위권 수험생 간 점수차는 커져 지원의 폭은 넓어진 반면, 중하위권 성적은 좁혀져 지원 폭이 좁아졌다.

특히 가장 어렵게 출제된 국어 영역 성적은 인문계 수험생은 물론 자연계 수험생에게도 합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주로 자연계 수험생이 치른 수학가형보다 17점이나 높다. 수학나형과도 11점 차이이다. 국어 영향력이 인문계보다 자연계 학생에게 더 커진 셈이다.

같은 영역에서 같은 등급을 받았어도 표준점수 차이는 더 커 변별력은 벌어진다. 1등급 구분 표준점수(등급컷) 차이는 국어가 7점으로 가장 컸고, 수학가형·나형은 3점씩이었다. 상위권 수험생 간 점수 변별력이 국어, 수학 순으로 높고 같은 등급을 받았어도 표준점수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탐구영역도 상위권에서 변별력이 높다. 과학탐구와 사회탐구 모두 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6점이었고, 과목별 1등급컷 차이는 과탐의 경우 2~3점,

1등급 비율이 5% 이상이고, 탐구영역에서도 생명과학 I 과 생명과학 II를 제외하고 모두 5%대를 넘는 등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중상위권 수험생들의 눈치작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지원가능 추정 점수, 자연계 위주로 ↑
종로학원하늘교육과 메가스터디교육, 이투스 등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지원 가능한 수능 국어·수학·탐구 표준점수(600점 만점 기준) 추정치는 지난해보다 10점 내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연계 최상위권이 지원하는 의예과 추정 점수가 전년보다 크게 높아졌다.

서울대의 경우 의예(409~410점) 지원 가능 점수가 경영대(406~408점)보다 최대 4점이나 높을 것으로 예상됐고, 정치외교(405점), 국어교육(401~404점), 화학생물공학(399~400점) 순이다. 연세대도 의예(408~410점)가 경영학(401~406점)을 크게 앞질렀고, 치의예(401~403점), 정치외교(395~403점), 영어영문(394~401점) 순이다. 고려대 역시 의과대(405~408점)가 경영대(401~406점)보다 높고 경제(402점), 영어영문(399점), 사이버국방(394~400점), 행정(395점), 국어국문(394점) 등으로 예상됐다.

경희대는 의예(403~405점), 한의예(395점), 경영(389점), 서강대는 경영(392~396점), 인문(389~391점), 화공생명공학(387점), 성균관대 의예(407~408점), 글로벌경영(394~398점), 사회과학(390~395점), 반도체시스템공학(388~392점), 한양대 의예(403~405점), 정책(396점), 경영(389~393점), 미래자동차공학(390~392점), 파이낸스경영(392점), 중앙대 의학(402~405점), 경영경제(387~396점), 한국외대 LD학부(389~394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387~389점) 등으로 추정됐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상위권에서는 변별력이 생겨 소신지원이 가능하고, 중위권부터는 대학의 과목별 가중치 영향력이 커져 이를 확인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왼쪽)과 김태오 DGB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이 5일 사회배려계층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생활비 지원사업 맞손

한국장학재단-DGB사회공헌재단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5일 재단 본사에서 DGB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태오)과 대구·경북지역 사회배려계층 대학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 사업(가칭 위드유)에 적극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대구·경북지역 사회배려계층 대학생에 대

한 생활비 지원 ▲공동사업과 관련한 보유자료 제공에 대한 상호 협력 ▲학업의 지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명의 지역 대학생에게 1인당 240만 원씩, 연간 5000만 원의 생활비 장학금이 지원된다. 생활비 마련이 힘들어 학업을 중단하거나 취업 준비에 집중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용수 기자

한양사이버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BIM 경진대회 '2관왕'

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영무)는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재학생 2팀이 지난 1일 열린 '2018 한국 BIM학회 대학(원)생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 BIM학회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무형융합건축사무소가 후원·협찬한 이 대회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활용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시점에서 모델링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설물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는 학과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 받아 총 2팀을 구성하여 대회에 참가하였고 2팀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에서 개설한 '첨단건축도시 구축을 위한 BIM 전문가 과



지난 1일 열린 '2018 한국 BIM학회 대학(원)생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한양사이버대 시공팀(왼쪽부터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황주현, 박도영, 김동하, 정건수) /한양사이버대

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로 지난 7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한주도 빠지지 않고 주말마다 학교에 나와서 팀별로 열심히 준비한 결과 좋은 성적을 거뒀다.

국내 최초로 건축공학과 도시공학의 융합학과로 지난 2017년도에 개설된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는 매년 입시 때마다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주목을 받아 왔다. /한용수 기자